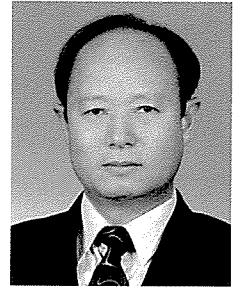


한·미FTA협상(양봉분야) 대응전략 심포지엄



회장 전 기 현

본 협회에서는 지난 6월19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 강당에서 한·미FTA협상과 관련 하여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화분매개로 인한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금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350여명의 양봉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심포지엄자리에서 본 협 회장 전기현 회장은 심포지엄의 개최 취지와 양봉산업의 현 실태 및 한·미FTA협상과 관련된 내용 등을 역설했다. 특히 바쁜 여름철 봉군관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양봉여러분께 감사 말을 아끼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포지엄을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지금 한창 여름철 봉군관리에 바쁜 시기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주신 양봉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미 FTA협상에 따른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끝벌이 농업·농촌과 축산업에 봉독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미 FTA협상에 따른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 양봉업의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양봉농가들은 타 축산농가보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양봉업을 유지해왔고 자생력을 키워 왔습니다.

최근 양봉농가들은 사육 규모가 대형화되고 사양관리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봉군수는 매년 증가하고 벌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특히 금년 아카시아벌꿀의 흉작과 최근 4년 동안 이상기온현상 등 벌꿀채밀량이 매우 저조하여 양봉농가들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으며, FTA협상 및 WTO-DDA협상 등으로 최악의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천연꿀은 243%의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FTA협상 및 WTO-DDA협상에서는 관세철회

폐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가 철폐된다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천연꿀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미FTA 협상에 따른 대응책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미FTA 협상에서 국내 벌꿀을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FTA라는 것이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좀 더 발전

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으나, 우리 양봉산업의 경우는 아직 외국 제품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양봉 산업은 국내의 상황만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고, FTA라는 거대한 시장개방에 아무런 보호막이 없습니다. 아무런 보호막이 없이 국내 양봉산업이 개방된다면 4만3천 양봉농가들에게는 엄청난 피해와 결국 우리 양봉산업은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국내 천연벌꿀은 좀 더 세심한 보호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 FTA 협상대상 품목에서 제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벌꿀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한 꿀 이상의 특별하고 독특한 차별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 단위 밀원수를 식재하여 기능성의 고품질 벌꿀을 생산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의학적인 효능이 입증되어 가고 있는 밤꿀, 헛개나무꿀, 음나무꿀 등의 생산을 통해 외국산과 차별화될 수 있는 꿀을 생산한다면, 그 어떤 수입산 제품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소비자 홍보를 통해 국내 벌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본 협회에서는 장기적인 대책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양봉인 여러분께도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양봉산업은 단지 벌꿀만을 생산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꿀벌을 이용하여 딸기, 참외, 사과, 배 열매채소 등 인공 화분매개보다 과실의 결실이 좋아지게 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생태계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농업선진국은 농작물의 화분매개를 위하여 꿀벌을 임대한 일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양봉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꿀벌의 역할과 가치는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농업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농작물 재배농가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심포지엄에서 이 점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양봉인 여러분과 각 시·도 양봉담당 공무원여러분,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양봉담당자님, 그리고 오늘 심포지엄에 주제발표를 해주실 여러 강사님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공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황민영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장님, 농민단체협의회회장 엄성호 회장님, 이전제 서울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님, 윤봉중 축산신문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양봉산업이 더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마련이 되길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